

Historical Overview of Inter-Korean Sports Exchange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남북 체육교류의 역사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언

Boram Lee¹, Tae Gyun Park²

이보람¹, 박태균²

¹ Stud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boram6627@snu.ac.kr

²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gpark@snu.ac.kr

Corresponding author: Tae Gyun Park

Abstract: The historical ebb and flow of sports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closely mirrored the fluctuations in their diplomatic relations. Flourishing during times of amicable inter-Korean ties and dwindling during periods of tension, these exchanges, though occasionally interrupted, have displayed remarkable resilience, distinguishing it from other spheres. This uniqueness stems from the ability of sports exchanges to transcend political boundaries, a quality proven to be instrumental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intricate history of North-South relations. Acting as crucial conduits during times of strained national relationships, sports exchanges serve as vital channels for diplomatic engagement. Currently,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find themselves in a state of suspension due to the far-reaching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revailing political circumstances. However, the recent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in the 2022 Hangzhou Asian Games hints at a potential revival in international sports engagement, foreshadowing the imminent resumption of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This thesis addresses the current strain in inter-Korean relations, offering innovative perspectives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of sports exchanges. Firstly, it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of regular and systematic sports exchange meetings or creating permanent organiz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fortify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is approach facilitates preparedness for unforeseen circumstances and lays the groundwork for sustained exchanges. Secondly, a corporate-centric approach is proposed for driving sports exchanges, acknowledging the pivotal role that corporate involvement can play, especially in situations where government-level dialogue encounters obstacles.

Keywords: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Exchanges, North Korean Policies, Korean Peninsula, Sports and Peace

요약: 역사적으로 남북 간 체육교류는 대체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반면에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체육교류가 더러 중단된 적은 있어도 완전히 단절된 적은 없다.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체육교류는 정치적 관계를 뛰어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외교에 있어 체육교류의 긍정적인 역할은 국제정치사와 남북관계사에서 여러 번 증명된 바 있다. 체육교류는 국가 간 관계가

Received: October 31, 2023; 1st Review Result: December 05, 2023; 2nd Review Result: January 08, 2024
Accepted: January 25, 2024

경색되어 있을 때 만남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현재 남북 체육교류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얼마 전 북한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스포츠 국제무대에 복귀했음을 알렸고 이에 따라 남북 간 체육교류도 곧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관계 경색의 물꼬를 트고, 미래의 교류를 위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체육교류에 접근할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남북 간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체육 교류 회의나 상설 기구를 설립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지속적인 교류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이 중심이 되어 체육교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의 참여는 정부 간 대화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육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핵심어: 남북관계, 남북교류, 대북정책, 한반도, 스포츠와 평화

1. 서론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남북 간에 다양한 교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북 간의 체육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남북 간의 대화의 장이 중단되었고,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체육교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 간에 다양한 교류가 있었지만, 체육교류만은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를 넘어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 남북 간의 갈등이 심해졌을 때도 체육교류를 제안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체육교류가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체육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평화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세기를 통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는 올림픽과 월드컵이 모두 개최되었으며, 냉전적 대립이 심각할 때도 반쪽으로 진행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제1세계와 제2세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아울러 북한과 같은 폐쇄되고 전체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도 체육교류를 유일한 대외 개방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된 국제 대회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를 직접 개최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의 경우에도 민주화 이전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 외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중 하나는 체육교류였다. 또한 1973년 6.23 선언으로 공산권과의 교류를 강조한 이후에도 그 첫 창구가 된 것은 동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것이었다.

현재 남북 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교류가 유일하게 가능한 분야가 체육 분야이다. 체육교류를 반대할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국무 위원장 집권 이후 지속해서 스포츠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의 폐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스포츠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끊임없이 국제 교류와 세계화를 강조하였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2019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공식화하였다. 이처럼 정치적 변동에도 스포츠

교류는 미약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이후 개최된 중국 우한의 아시안 게임에서는 남북 간의 체육교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남북 간 경색이 계속되는 분위기에서 남북 간 체육을 통한 남북 간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현재까지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는 것으로만 인식되었다. 기존의 연구도 이에 따라 각각의 사건에 대해 접근하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전망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장효(2015)와 김동선(2014)은 이명박 정권 시기의 대북정책과 남북 체육 교류 협력 실적에 대해 분석했다[1][2]. 이들이 연구한 이명박 시기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 또한 보수 정권이며 다소 공격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 및 긴장국면으로 교류가 최소화된 시기라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는 유용한 비교 대상을 제공한다.

김영란, 김홍태(2013)는 박근혜 정부 시기의 대북정책과 남북 체육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초래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3].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처럼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도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관계를 바로 체육교류와 연결시킬 수는 없다.

임채선, 오동훈, 이재순(2020)의 연구에서는 남북 관계의 교류를 지속성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분석하였다[4]. 그러나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체육 분야는 정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은 분야로써 연구에서 주장된 요인들로 체육교류의 지속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들은 주로 특정 정권 시기의 대북정책과 남북 체육교류의 성과에 집중이 되어있다.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도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일차원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현 상황에는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체육교류가 이루어졌던 전반적인 상황들을 분석하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빙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스포츠 교류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이론과 방법

본고에서 남북 체육교류와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피셔와 유리의 협상이론이다[5]. 피셔와 유리의 이론에 근거하여 협상을 배분적(distributive) 협상과 통합적(integrative) 협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체육교류를 논의는 배분적 협상이라기보다는 통합적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6]. 체육교류는 정치, 군사 관련 남북 관계처럼 정해진 이익을 위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성사될 경우 상호 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반면,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잃는 것은 없는 게임을 위한 협상과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한 체육교류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될 경우 평화적 관계라는 안보 재화와 함께 정권 선전이라는 연성권력(soft power) 및 부수적 경제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한 협상과 교류라고 할 수 있다. 통합적 협상을 위해서는 유연한 입장과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연성 입장에서 가능한 것인데, 실상 체육 분야의 협상과 교류는 강성 입장의 배분적 협상과 관계에 종속되어 왔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 이데올로기나 군사안보가 주가 된 배분적 협상으로부터 체육 분야 협상과 교류를 분리시켜 통합적 협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남북한 체육교류의 역사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통일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각종 연구기관이 발간한 보고서, 학술 연구 자료 및 언론 보도 자료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남북한 체육교류의 역사적 변천, 주요 동향, 성과, 그리고 실패 등에 대한 학술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남북한 간의 체육 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 과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수립하였다.

3. 본론

3.1 남북 체육교류의 역사

역사적으로 체육교류를 통해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예는 국제정치사와 남북관계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평풍외교”를 들 수 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1년, 키신저 장관의 주도로 미국 탁구팀이 중국을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가지며 양국 간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얼어붙어 있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상화되었고 이듬해인 1972년, 닉슨-마오쩌둥 회담이 미국 내에서 큰 저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또 다른 예로 1973년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이것은 1973년의 6.23 선언에서 밝힌 공산권과의 교류 가능성을 계승한 것으로, 이후 한국의 해외 공관에서 소련 공관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체육은 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치적, 민족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 체육교류의 역사는 해방 직후의 교류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12월에 경평(경성 평양) 아이스하키대회가 서울 창경원 특설링크에서 개최되었고 이듬해 3월에는 경평축구전이 서울에서 열렸다. 분단 정부 수립 이전이었지만, 남북 간의 첫 체육교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57년 북한이 로마올림픽(1960년)에 단일팀을 출전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남한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고, 1963년에는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출전을 위한 체육 회담이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기도 하였다.

냉전과 정전체제하에서 남북 간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1964년 도쿄 올림픽 당시 신금단 선수가 1.4후퇴 때 헤어진 아버지 신문준 씨를 상봉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1953년 정전협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지만, 1960년대 중반 상황에서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 주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오가미가 씌워지기도 했다[7].

1979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면서 남한의 참가가 논의되었지만, 결국 불참하였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위한 체육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소련과 공산권의 보이콧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에는 서울 올림픽에 단일팀 출전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북한과 일부 공산국가의 서울

올림픽 불참으로 인해 다시 결렬되었다.

본격적인 체육교류는 1990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직후 남북 통일 축구대회가 1990년 개최되었고, 같은 해 개최된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는 단일팀은 무산되었지만, 한반도기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공동응원팀이 구성되었다. 1991년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6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 처음으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면서 남북 간 체육교류는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북핵 문제와 김영삼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한동안 이어지지 못했던 남북 체육교류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남북통일농구대회(이상 1999년), 통일 염원 금강산 자동차 질주 경기 대회(2000년)로 이어졌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후 2007년까지 각종 국제 대회에 남과 북의 공동 입장이 이루어졌고, 남북 간의 체육 대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2017년까지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에 가서 다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스웨덴), 코리아오픈 탁구 대회(대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국제탁구연맹 그랜드 파이널스 대회 등에 남북 단일팀과 공동 입장이 이루어지면서 체육교류가 활성화되는 듯 보였지만, 2019년 단일팀으로 출전한 세계 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독일, 덴마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남북 체육교류는 계속되지 못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치적 상황이 악화된 것도 주요한 이유였지만, 2020년 이후 2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은 체육교류가 중단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되었고, 2022년 남한에서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남북 관계 악화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3.2 남북 체육교류의 특징

3.2.1 남북 간 정치적 관계와 연동

[표 1] 역대 정부 남북 스포츠 교류 실적

[Table 1] Inter-Korean Sports Exchange Achievements under Past Governments

- 민주당계 정당
- 보수주의 정당

	정당	정부	남북한 체육교류 횟수 (무산 제외)	비고
1		노태우(1988~1993)	약 4회	남북통일축구대회, 베이징 아시안 경기대회,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2		김영삼(1993~1998)	0회	
3		김대중(1998~2003)	약 13회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북통일농구대회, 통일염원 금강산자동차질주경기대회, 제27회 시드니하계올림픽대회,

			<p>경평축구대회, 제81회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 채화,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통일염원 금강산 자동차질주경기대회, 2002 남북 통일 축구경기, 태권도시범단 교환, 2002 부산아시안게임, 제5회 아오모리동계아시아대회</p>
4	노무현(2003~2008)	약 19회	<p>제22회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통일농구대회,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제28회 아테네하계올림픽, 제2회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남북통일축구경기,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제4회 마카오동아시아대회, 제20회 토리노동계올림픽,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강원도겨울철 체육경기대회, 제15회 도하아시아경기대회, 제6회 창춘동계아시아대회, 남북유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북한 태권도 시범 초대, 평양-남포 통일 자전거경기대회, 2007 FIFA 청소년(U-17) 월드컵축구대회, 제 2회 국제청소년친선축구대회, 제3회 동아시아축구대회</p>
5	이명박(2008~2013)	약 8회	<p>2008 아시아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2008 아시아유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3차 예선전, 2008 남북태권도 교류행사,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축구단 교류, 제29회 베이징올림픽,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최종 예선전, 제1회 피스 앤드 스포츠 탁구컵</p>
6	박근혜(2013~2017)	약 7회	<p>2013 아시아연맹축구선수권대회 (동아시안컵),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안클럽 역도선수권대회 및 남북역도교류, 제17회 인천아시아/장애인 경기대회, 2014 제1회 아리스포즈컵, 국제유소년 (U-15)축구대회, 제2회 아리스포즈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남북노동자축구대회</p>
6	문재인(2017~2022)	약 25회	<p>세계여자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p>

		<p>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식령스키장 훈련, 평창 동계패럴림픽,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 및 태권도 시범단 방북 공연, 2018 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18 코리아오픈 탁구대회,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북통일농구대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대회, 2018 세계유도선수권대회, 국제탁구연맹(ITTF) 2018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대회, 남북 씨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공동등재, 국제탁구연맹(ITTF) 2018 오스트리아 오픈 대회, 남북 체육분과회담(11월, 12월): 2032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남북 공동개최,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2019 남북스포츠교류전 축구 친선경기, 강원체육고등학교/강원도청 소속 마라톤 선수단/북한4.25체육단 마라톤 공동훈련, 2019 아시아 주니어 카뎃탁구선수권대회 (동아시아 지역 예선), 2019 아시아유소년 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p>
--	--	----------------------------------------------------------------------------------------------------------------------------------------------------------------------------------------------------------------------------------------------------------------------------------------------------------------------------------------------------------------------------------------------------------------------------------------------------------------------------------------------------------------------------------------------------------------------------------------------------------------------------------------------------------------------------------------------------------------------------

남북 체육교류는 대체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반면에 추진이 되었다가 무산이 된 경우는 대부분 북한이 일방적인 참가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당시 정치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남북 간 정치적 긴장 상황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강할 때는 양국 간 체육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각기 다른 대북정책으로 인해 표 1과 같이 대체로 진보정권 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다시 보수정권 하에서는 체육 교류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8].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체육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첫 번째 사례는 노태우 정부 시기였다. 이 시기는 탈냉전과 함께 노태우 정부의 1988년의 7.7선언과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발표, 그리고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가장 중요하나 배경이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는 공동 응원, 이듬해 1991년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참가가 이루어져 남북 간 스포츠 교류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코리아 단일기로 남북 단일팀 출전과 여자 대표팀의 우승은 체육교류의 백미를 장식하는 순간이었다. 이 대회는 남한에서 <코리아>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남북통일축구대회, 베이징 아시안 경기 대회,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최초 남북 단일팀 구성), 제6회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남북 단일팀 구성),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 단일팀 구성 체육 회담(북한 유도선수 이창수 씨의 귀순 문제로 무산[9]) 등으로 계속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는 남북 체육교류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남북 단일팀 구성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 공동 입장과 공동응원이 이루어졌고, 남과 북에서 개최된 국제 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거나 국제 대회가 없더라도 남과 북이 따로 체육교류 이벤트를 만들기도 했다. 통일 염원 금강산 자동차 질주 경기대회(2001년 7월)나 남북통일 축구 경기(2002년 9월과 2005년 8월), 태권도 시범단 교환(2002년 9월), 남북통일농구대회(2003년 10월),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2003년 10월),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 경기 대회(2006년 3월), 남북 유소년 축구 선수단 상호 교류(2007년), 남북노동자 통일 축구(2007년 4월), 평양-남포 통일 자전거 경기 대회(2007년 5월), 남북 태권도 교류행사와 남북 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단 교류(2008년 6월)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체육교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북핵 문제가 본격화된 1993년 이후 1998년까지 남북 간의 체육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1994년 이후 북한의 소위 ‘제2의 고난의 행군’과 1997년 남한의 금융위기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김일성 주석 조문과동 이후 악화된 남북 관계가 체육교류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남북 체육교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가 주요한 요인이 되었지만, 2006년 이후 지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주요한 요인이 되었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남북 체육교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3.2.2 불편한 관계 속에서 진행된 체육교류

남북 체육교류가 남북 관계의 상황에 연동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육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2011년 남과 북은 카타르에서 열린 제1회 피스 앤드 스포츠 탁구 컵에 남북 단일팀을 출전시켰고, 남자팀이 우승, 여자팀이 준우승을 했다[10].

박근혜 정부 시기에 열린 인천아시아 경기대회(2014년)에는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며, 폐막식에는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참석했다. 이들은 남한의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자리를 가졌으며, 체육교류가 정치 회담으로 이어진 사례였다[11]. 2015년에는 평양에서 남북노동자 축구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렇게 체육교류 자체가 남북 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류를 반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때에는 체육교류가 진행되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에서 열린 피스 앤드 스포츠 탁구컵은 분쟁국들이 서로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하는 대회를 구성했고, 여기에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 인도와 파키스탄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함으로써 체육교류로서 평화를 달성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

2014년의 경우 박근혜 정부 초기 한중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사드 사태 이전 한중관계는 이명박 정부 시기 이전으로 복원되었고, 이는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도 체육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시기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날선 대립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 그리고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 체육 경기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이러한 대회에서 남한 대표단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다. 1년 연기되어 2023년 개최된 중국 우한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대표단이 만났던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선수단의 조우가 체육 회담으로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지만, 체육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3.2.3 상설 남북 체육교류 기관의 부재

이렇게 남북 체육교류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동안 남북 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체육교류는 남북 간의 만남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문제는 70여 년 간 체육교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체육교류를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체육교류는 ‘남북체육회담’을 통해서 제안되고, 논의되었다. 1963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동, 서독처럼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남한과 북한이 동의하면서 처음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13차례 회담이 열렸지만, 회의는 결렬되었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모스크바 올림픽,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서울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열렸다. 모두 결렬되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속에서도 체육 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남북체육회담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를 계기로 다시 개최되었고, 1989년 3월 1차 회담 이후 동년 12월까지 6차례 회담과 3차례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단일팀은 무산되었지만, 한반도기를 사용한 공동응원이 이루어졌고, 1991년 다시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기와 국호 ‘코리아’를 합의하기도 했다[12].

그런데 문제는 체육교류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상시적 기구가 아니라 사안별로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이다. 체육교류를 한 쪽에서 제안하고, 다른 한 쪽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한 쪽에서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제안이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북체육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남북체육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일팀이나 공동입장, 그리고 단일기의 사용 등은 불가능했다.

비상설적인 남북체육회담을 통한 남북 체육교류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에는 체육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남북한보다 체육교류가 더 활발했던 서독과 동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74년 동서독 체육기관 간에 ‘독독스포츠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협약을 통해 이후에 진행될 대회 계획과 운영안을 협약 내에 담았다. 또한 1986년에는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체육 클럽들이 서로 교류하기도 하였다[13]. 이를 통해 체육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남북한 간의 체육교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독일 내외부의 상황에 따라 체육교류가 부침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체육회담이 상설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고, 체육회담을 넘어서는 체육교류를 위한 남북 간의 상설기구가 부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체육 회담에 대해 남북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의를 한다거나 남북이 공동으로 상설기구를 설치할 경우 남북관계의 상태에 관계없이 체육교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수록 체육교류는 남북 간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체육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새로운 체육교류 의정서가 체결되거나 상설 회담, 또는 상설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4.1 남북관계 체육분야 상황분석

현재 남북 스포츠 교류는 팬데믹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할 때 북한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는 스포츠 대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스포츠 분야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 시대의 발전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이 국제 체육대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체육교류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례적 회의의 마련, 또는 상설 기구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체육교류와 관련된 회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체육을 북한의 체제 선전으로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우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이 보여준 태도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의 오광혁 체육성 부상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조선의 체육기술 발전 실태를 세계만방에 시위하고 종목별 경기들마다에서 존엄 높은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조선 사람의 위용을 떨쳤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당 8차 대회에서 체육 부문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다”라고 하면서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세계적 체육 선진국 대열에 확고히 들어서는 것이 체육 부문의 기본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14]. 이러한 언급은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했던 국제 체육경기

대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남북관계 체육분야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스포츠 교류 관련 정책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남북 스포츠 교류 재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남북 간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체육 교류 회의나 상설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상설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체육 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남북 체육교류는 남북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든 진행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에 다양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러한 상설적이고 정기적인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이 중심이 되어 체육교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2011년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남한의 한 기업의 후원으로 인해 카타르에서 개최된 피스 앤드 스포츠 탁구 컵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재 남북 정부 간 어떠한 대화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체육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체육교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정부보다는 기업이 나서서 것이 체육교류에 제안에 응답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남북관계 경색의 물꼬를 트고, 미래의 교류를 위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체육교류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국가전략을위한 다학제적 국제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eferences

- [1] Zhang Xiao, An Investigation on the Inter-Korean Sports Exchange Policy of the Korea Government, Choda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15)
- [2] Dong Sun Kim, A Stud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014), Vol.23, No.5, pp.1-12.
UCI: G704-001369.2014.23.5.062
- [3] Young-Ran Kim, Heung-tae Kim, A Study o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motion Plan,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3), Vol.7, No.4, pp.285-300.
DOI: 10.21184/jkeia.2013.12.7.4.285
- [4] Chaseun Lim, Dong hoon Oh, Jae Soon Lee, A Study on the Sustainable Factors of Inter- 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020), Vol.33, No.4, pp.207-225.
DOI: 10.36700/KRUMA.2020.12.33.4.207
- [5] Roger Fisher, William Ury, Bruce Patton,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Parper Business Book, (1998)

- [6] Chae-sung Chun, Relation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from the Perspective of Negotiation Theory: Interest, Power, Identity, and Multi-level Negoti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002), Vol.11, No.2, pp.1-22.
UCI: G704-000687.2002.11.2.005
- [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052.html, Nov 14 (2023)
- [8]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port Science,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9)
Available from: https://ipus.snu.ac.kr/wp-content/uploads/2021/09/%EA%B2%B0%EA%B3%BC%EB%B3%B4%EA%B3%A0%EC%84%9C_pdf.pdf
- [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690349#home>, Nov 14 (2023)
- [1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2402900>, Nov 14 (2023)
- [11] <https://www.voakorea.com/author/voa-%EB%89%B4%EC%8A%A4/-gtmo>, Nov 14 (2023)
- [12]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gounikorea>, Nov 14 (2023)
- [13] Mi Sook Kim, Byung-Rok Song, Sports Exchanges between two Germanies before the Un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for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2013), Vol.18, No.2, pp.75-88.
UCI: G704-001773.2013.18.2.003
- [14] <https://m.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310110725001#c2b>>, Nov 14 (2023)